

〈特別寄稿〉

解冤相生の 理解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鄭大珍

目次

I. 머리말	
II. 해원상생의 이론적 배경	2. 상생의 사상
1. 대순사상의 출현과 해원상생	(1) 상생의 의미
2. 대순종지와 해원상생	(2) 상생의 이념
III. 해원상생의 사상적 의미	IV. 해원상생의 실천
1. 해원의 사상	1. 척을 짓지 않음
(1) 해원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2. 남을 잘되게 함
(2) 해원의 이념	V. 맺음말

I. 머리말

대순사상의 종교적 구현을 위해 설립된 대순진리회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사상적 요지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 요람에 따르면 종단의 명칭을 대순진리회라고 한 그 대순(大巡)의 어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전경의 다음 구절을 들고 있다.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 최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기 3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

(예시 1절) 즉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신을 무시하며 강륜(綱倫)을 완전히 저버린 시대가 되자 신의 세계에서 부터 이러한 인간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급기야 최고신격인 상제의 강림으로 인해 우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때 상제께서 천·지·인 삼계(三界)를 둘러 보심에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대(大)이며, 이를 두루 면밀히 살펴보고 진단하셨다는 점에서 순(巡)이다. 그래서 대순이라는 어귀속에는 인간이 처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이 소망하는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진리를 모태로 하여 하나의 종교적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면 여기에는 그 종교사상을 이루는 종지가 필요하며, 수행방법으로서의 신조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종교적 목적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 입각하여 필자는 앞서 대순종지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설명해 왔던 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16자 가운데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를 나름대로 해설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지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으로 대순진리에서 표방하는 대강령(大綱領)으로서의 해원상생(解冤相生)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먼저 해원상생이 대두되는 이론적 배경을 말하고 그 의미를 설하며 나아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설명하는 순으로 차례대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해원상생의 이론적 배경

1. 대순사상의 출현과 해원상생

대순사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천(先天)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극적(相克的)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선천은 우리 인간이 살아온 이제까지의 역사를 말하며, 이는 원(冤)으로 점철된 투쟁과 번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상호간에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를 해치며 그래서 원(冤)을 맺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원

을 낳아서 천지에 원이 가득차버린 그러한 참혹한 세상인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경의 다음구절을 참고해보면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 고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9절)

즉 서양의 물질문명이라는 것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천리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는데서 모든 죄악을 발생시키고 이는 마침내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전 우주적 질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의 세계에서부터 그 구원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원시의 모든 신성 불 보살들이 최고신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급기야 최고신으로서의 상제께서는 천하를 두루 살펴보고 구제의 역사를 단행하게 되니 이로써 대순사상의 출현을 맞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순사상이란 신의 세계에서 최고의 위격에 계시는 상제께서 인류와 신명계가 처한 겁액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인간세상에 강림하게 되고 이어서 그 구원의 처방을 행하신 역사를 조술(祖述)한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순사상의 출현과 관련해서 상제께서 진단하신 시대적

상황과 그 구원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는 다음의 전경구절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공사 1장 3절)

즉 선천은 상극(相克)이라고 하는 원리로 빚어진 세상이며 이는 상호 반목과 투쟁을 일삼으므로써 서로에 대해 원한을 쌓게 된 세상이다. 이 원(冤)이 천지에 가득차므로써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던 것인데 상제께서는 바로 이러한 원을 해소하는 것에 의해 진멸지경에 빠진 인류와 신명계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는 공사(公事)로써 만고의 원한을 풀게 되었으니 이를 이룸하여 해원(解冤)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원이 맺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원리로서 생활해 나가야만 하겠는데 상제께서는 이를 ‘상생(相生)의 도(道)’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상생의 도는 선천의 생활원리와는 정반대인 후천(後天)의 생활원리이며 어떠한 원도 맺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를 잘되게끔만 하는 이러한 상생의 사상은 인류에게 무한한 선경(仙境)의 낙원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순사상의 출현과 해원상생의 사상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인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 수 있는 사상적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신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은 우주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것이며 또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계시는 동안 새로운 천지를 만드는 역사를 단행하셨다는 것은 인류에게 무한한 꿈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끔 해준다. 여기에 해원상생의 사상은 상제께서 이루어 놓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나갈

대화합의 원리이며 영원한 평화의 이념으로써 제시되어 지고 있다. 인류가 쌓아왔던 원을 다 풀고 오직 서로를 잘되게끔만 해주는 상생의 원리로서 생활해 나가는 것은 인류에게 더없는 낙원의 이상을 달성하게끔 해주는 지도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대순종지와 해원상생

최고신으로서의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오늘날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종교적 조직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단의 확립과 더불어 제시되는 교리체계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교리체계 가운데 종지(宗旨)는 그 사상적 요지를 담고있는 대표개념이다. 즉 대순종지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16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하나하나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음양합덕이란 인간을 둘러싼 천지(天地)가 인간에게 어떻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가를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이때까지의 천지는 상극(相克)이라고 하는 원리로 빚어진 세계이므로 인간에게 재앙만 가져다 주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 이를 개조하기 위해서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오직 선한 상생으로만 가지고 세계를 빚어서 새로운 천지 우주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천지는 오직 사람에게 덕으로서의 혜택만을 내려주게 되니 이러한 세계의 조판원리(組版原理)가 바로 음양합덕인 것이다.

음양합덕이 이루어지므로써 가능한 것이 신인조화이다. 신과 인간이 일본(一本)이 되어서 조금도 마음을 속일 수 없는 아주 밝은 세상, 윤리도덕이 엄격하게 갖추어진 거짓이 없는 세상이 이룩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의 조화에 의해 자기가 노력한 대로 바라는 대로 모두 다 되면서 아주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를 일컬어 신인조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그러한 세계에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상 또는 사회풍조라고 할 수 있다. 상제께서 이룩하신 새로운 천지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다 성취하므로 어떠한 원(冤)도 남아 있지 않은 세상이다. 그래서 오직 남을 잘되게끔만 마음을 쓰게 되니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 그렇게 생활해나가는 모습을 일컬어 해원상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타락되고 윤리도덕이 부재한 현실에서 대순진리를 대사회적으로 실천해나가고 강조해야만 할 슬로건은 다름아닌 '해원상생'에서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도통진경은 앞서 말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그리고 해원상생의 이념으로 이룩된 전체 세계상(世界像)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천지대자연이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내려주므로서 아주 풍요로운 환경을 이루고, 인간은 신과 조화를 이루어 조금도 거짓이 없는 밝고 투명한 세계가 되며, 어떠한 원도 한도 없이 오직 서로를 잘되게끔만 하는 그러한 사회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소망하는 도화낙원이자 지상천국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진리로서의 도(道)가 모든 사물과 인간에게 두루 통한 참된 세계이므로 대순사상에서는 이를 '도통진경'이라고 하여 중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살펴볼 때 16자로 구성된 대순종지에서 해원상생의 이념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중차대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음양합덕과 신인조화가 앞으로의 인류가 맞이해야 할 후천세계의 실상을 가리키고 있다면 해원상생은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생활원리이며 대사회적인 지도이념으로서 제시되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실천해야만 되고 생활해 나가야만 하는 지침은 대순진리를 전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시키는 슬로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류의 보편적 생활원리이자 실천개념으로서 해원상생이 지니는 이념은 그 사상적 의미외에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생활화해 나가는 것이므로 어떤 기존의 종교적 실천도 여기에 다 포용될 수 있고 어떤 종교적 목적도 이러한 이념아래 다 수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해원상생의 사상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 먼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그 실천덕목에 관한 것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Ⅲ. 해원 상생의 사상적 의미

1. 해원의 사상

(1) 해원(解冤)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해원(解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冤)에 대한 그 사전적 원의(原義)에서부터 살펴보면 보다 분명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원(冤)이라는 글자의 구성은 덮을 덮(宀) + 토끼 토(冤)로 이루어져 있다. 말하자면 한마리의 선량한 토끼가 덮개 속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에서 뛰어놀던 토끼가 사냥꾼의 욕심에 의해 덮개에 갇히게 되니 욕구불만이 되고 자기를 가둔 상대에 대해 원망이 쌓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무고하게 덮어 쓴 죄’ ‘원통하게 누명을 쓰다’ ‘원한’ ‘증오’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이 때 원이라는 글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모든 사물 또는 인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연스러운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서 생기는 자기 감정이 바로 원(冤)이 되는 것이다. 꼭 상대를 의식하여 누구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루지 못한 소망도 여기에 포함된다. 즉 원(冤)자의 의미에는 상대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는 원(怨)자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원(願)자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원망의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원의 의미로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천에 계신 상제께서 인세에 강세하셔서 이 선천의 세상이 진멸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진단하신 내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冤)의 점철(點綴)로 인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서부터 쌓여져 온 것이며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 오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의 전경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고 하셨도다. (공사 3장 4절)

즉 인류의 원의 시작은 정권쟁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역사의 첫머리에 기록되는 요임금의 아들 단주가 그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는데서 품게 된 원(冤)이 그 왕위를 물려받은 순을 창오땅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러한 정권쟁탈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이어져 선천세상을 원으로 가득차게 만들고 말았다. 이렇게 가득찬 원은 마침내 인간을 구제할 수 없는 파멸의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천지신명의 하소연으로 구천에 계시는 상제께서 직접 인세에 내려오시게 되었던 것이다.

인세에 강세하신 상제께서는 이러한 파멸지경에 빠진 인류를 건지고자 천지공사를 단행하셨으며 그 공사의 대체적인 방향은 해원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얽혀진 원(冤)의 고리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원 근본에 들어가서 풀어야 뒤의 것도 풀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의 역사의 첫 장인 요의 아들 단주의 원을 푸는 것에서 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 상제께서 장근으로 하여금 식혜 한 동이를 빚게 하고 이날 밤 초경에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인경 밑에 놓으신 후에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오.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 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 지금 최 수운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코자 함이니 이 식혜는 수운을 대접하는 것이라 말 씀하시오 「너희들이 가진 문집(文集)에 있는 글귀를 아느냐」 고 물으시니 몇사람이 「기억하는 구절이 있나이다」 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백지에 「결군긋 초란이패 남사당 여사당 삼대치」 라 쓰고 「이글이 곧 주문이라. 외울 때에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조심하라」 이르시고

「이 글에 곡조가 있나니 만일 외울 때에 곡조에 맞지 않으면 신선들이 웃으리라」 하시고 상제께서 친히 곡조를 붙여서 읽으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따라 읽게 하시니 이윽고 찬 기운이 도는지라. 상제께서 읽는 것을 멈추고 「최 수운이 왔으니 조용히 들어보라」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인경 위에서 「가장(家長)이 엄숙하면 그런 빛이 왜 있으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 이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니라. 한 종도가 대답하기를 「수운가사(水雲歌詞)에 있나이다.」 상제께서 인경 위를 향하여 두어 마디로 알아듣지 못하게 수작하셨도다.(공사 2장 3절)

이렇게 하여 단주의 원이 풀리게 되면 원의 첫 고리가 풀리는 것이므로 이후에 쌓인 원도 모두 다 따라서 풀려지게 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그러한 원을 다 풀므로써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시 원이 맺히지 않도록 새로운 원리로서 천지를 재창조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는 나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5절)

즉 해원에 입각하여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 새로운 천지를 이룩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사는 인류는 무한한 선경의 낙원을 경험하며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해원은 선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하나의 방법이며 나아가서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기 위한 선행조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오늘날 변화하는 현실에서 상제께서 행하신 해원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또 그 공사가 궁극적으로 달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므로써 해원사상의 궁극적 이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2) 해원의 이념

해원을 위주로 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행해진 천지인 삼계(天地人 三界)의 개벽공사(開闢公事)이다. 즉 삼계에 가득 찬 원

(冤)을 해소하므로서 무한한 선경의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신천지의 창조 작업인 것이다. 이렇게 행해진 9년간의 공사는 이후 인류의 역사를 해원을 통한 선경건설(仙境建設)로 이끌어가게 된다.

해원의 이념은 상제의 천지공사 이후 전개되는 역사의 대체적인 방향과 그 결과 도래하는 후천선경의 실상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선천세상의 악습(惡習)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원을 쌓게 하였다면 그것이 철폐되므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며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는 것과 더불어 해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한국사회만 보더라도 이조 5백년동안 여자는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물론 집안의 대소사(大小事)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남자였지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관습을 철저히 적용하는 시대에서 평생을 원(冤)과 한(恨)으로 얼룩진 여자의 인생은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그 모든 원이 풀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인간의 권리적 측면에서 항상 동등 동권한 시대를 열게 된다. 이와 관련한 전경구절을 살펴보면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교법 2장 57절)

후천에서는 그 님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교법 1장 68절)

라고 하여 남존여비의 관습이 무너지고 남녀동권(男女同權)의 시대가 열리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해원의 역사를 든다면 반상의 구별이 없어지고 적서의 차별이 철폐되었다는 것이다. 반상의 구별이 철폐할 때는 상놈은 때려죽여도 살인죄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적서의 차별이 심해서 서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벼슬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차별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상놈취급을 받던 사람과 서자로서 한 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러한 원도 다 풀어져서 더이상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 1장 9절)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 올 낮추시옵소서」 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운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 (교법 1장 10절)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은 그 조상들에서부터 사무친 원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해원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좋은 시대가 열리려면 그렇게 원이 많은 사람들을 더욱 우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인(賤人)을 무시하고 적서의 구분을 따지는 행위들은 옛날부터의 관습에 얽매인 것들이 많으므로 이런 관습을 속히 버리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진정한 해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원이 다 풀려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남녀차별이 없어지고 반상의 구별이 없으며 적서의 명분을 따지는 일이 없는 그러한 해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에는 험벗고 굶주리는 사람도 많았다. 농촌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배고픔이 하나의 원(冤)으로 남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현재 험벗고 굶주리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구호가 되든 그렇게 물질적으로 편리하고 풍요한 세상으로 변해왔다. 이것은 모두 상제께서 해원의 천지공사를 보신 덕분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원공사가 그 결실을 이루는 궁극적인 지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맺힌 데가 없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하나라도 맺힌 데가 있으면 막히게 되고 그것은 또하나의 원(冤)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곳에도 막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 소망을 다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경지야말로 해원의 이념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

한 경지는 전경에서 '도통(道通)'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도통은 현재의 해원시대가 궁극에 다다라서 모든 분야에 막힘이 없이 다 통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인간적 사회를 넘어선 전 우주적인 해원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5절)

즉 진리로써 막힌 데가 없으며 전 우주로 두루 통하는 세계이며 그 세계에서 인간이 바라는 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 질 때 진정한 해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해원의 이념속에는 어떠한 사상도 다 수용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다. 소망하는 것을 다 해결해주게끔하는 사상이다. 한 국가의 소망까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상이 아니면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장 극심한 것이 국가간의 이념대립이므로 해원의 이념속에서 만난다면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간의 마찰문제도 해원의 이념속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 궁극적 목적이 성불(成佛)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가 되게끔 해주는 것이 곧 해원이며, 유교적 수행을 하는 사람은 육예(六藝)를 다 통달해서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인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해원이다. 선도(仙道)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은 신선의 경지를 바라므로 또 그렇게 신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해원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포괄적인 의미의 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도통된 세상에서 누구나 원망이 없이 자기 소망을 달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서 해원의 이념이 이룩되는 것이다.

위의 전경구절에서 언급한 도통의 경지는 개인의 소망을 포함하여 어떤 분야든지 전반적인 도통을 다 함을 의미한다. 대순종지에서 음양합덕(陰陽合

德)은 우리 인간세계를 무한정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사상이다. 이는 인간적인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신명의 조화로서 만들어지는 세계이다. 무한정 풍요롭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세상이며 개인의 소망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세상이다. 여기에 어떤 종교나 사상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행복을 누려나갈 때 그 영원한 평화가 이룩된다는 것이 바로 해원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생(相生)의 사상

(1) 상생의 의미

해원의 사상과 관련해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상생(相生)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실천개념으로 더 많이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음양합덕의 천지조판으로서 짜여지는 새로운 세계의 구성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도 서로 상생으로서 만나고 물과 불도 서로 상생으로서 만나며 사람과 자연도 상생으로 만나는 등 모든 만물이 서로 상생으로서 만나는 가운데 인간도 서로를 상생으로만 대해 나갈 때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반대되는 상극(相克)의 의미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극이란 선천세상을 지배해온 만물의 구성원리로 선악(善惡)이 공존(共存)하면서 서로 극해(剋害)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시대이며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으며 지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 오로지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싸움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싸우는 결과 남는 것은 상대에 대한 원망의 감정 뿐이며 그것은 선천세상을 피로 물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인간세상뿐만이 아니라 신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 위계질서가 흐트러지고 혼란이 자초되는 바람에 우주가 파멸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선천세상의 참혹한 결과인 것이다. 신명과 신명,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사이에 맺힌 원도 모두

이러한 상극의 지배원리 탓이다. 따라서 서로의 원을 풀고 다시는 그러한 원이 맺히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의 관계로서 이 세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모든 만물을 상생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며 이로써 영원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상생의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전경구절에 잘 명시되어 있다.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 (예시 8절)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예시 9절)

즉 선천세상을 원으로 가득차게 만든 것은 상극(相克)의 도(道)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이며 이를 영원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새로운 천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모두 상생으로써 조화되며 나아가 천지만물도 상생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상생(相生)이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잘되게 해주는 관계를 말한다. 누구를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오직 남을 잘 되게 하여야만 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상대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대상이며, 나를 잘 되게끔 해주는 관계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안보면 보고 싶으며 무척이나 동경하면서 서로를 위해 무한히 덕을 베풀어 나간다.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가 잘되고 출세하여야만 따라서 내가 잘되는 관계이다. 이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를 눌러 이겨야만 하는 상극적인 관계와는 정 반대의 개념이 된다. 전경에는 이러한 상생의 도(道)만이 세계를 화평하게 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들었도

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제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 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교운 1장 16절)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예시 10절)

선천의 상극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나 이는 천하에 재앙만 끼칠 뿐이요 어떤 이득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상제께서는 상생의 도로써 교화를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므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덕을 입고 또 그 덕을 서로 베풀어 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신다. 덕이란 곧 선한 일을 말하며 서로가 덕을 권하고 베풀어 나가는 것이 상생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생의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그 유사한 개념으로서 공생(共生)의 의미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둘의 개념차이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즉 오늘날과 같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은 인간에게 물질적 개발을 위한 자연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원은 언젠가 고갈될 지 모르는 부족하고 불균등한 상태에 놓여져 있으므로 이것을 인류가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루 분배하고 나눠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공생(共生)이란 인류가 제한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미운 사람끼리도 같이 섞여 살면서 같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나눠먹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생은 공생과는 그 개념을 근본에서부터 달리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과 같이 제한된 자원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음양합덕의 천지조판으로 인해 빛어지는 무한히 풍요로운 환경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그 혜택을 베풀어 준다. 자연이 베풀어 주는 아주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그 영원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간은 서로 많이 가지고자 싸울 필요가 없으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오직 서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관계

가 이루어진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위해 모든 덕을 베풀어 주며 또한 그 아이를 무한히 동경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누구나 서로를 위해 애써 나갈 때 그 세계는 상생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즉 환경이 바뀌므로써 인간의 마음도 바뀌어 모든 것이 풍요롭기만 한 것이 바로 상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생은 상극의 반대개념이면서 공생과도 그 개념을 달리하는 대순사상의 독창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인세(人世)에 강세하시어 9년간의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신천지(新天地)를 창조하게 되었는데 그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인류역사의 고정관념을 깨고 전혀 새로운 지배원리가 제시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서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상극이 선천세상을 파멸로 이끌게 하였으므로 그와 정반대의 상생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됨을 시사하고 이 새로운 지배원리로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영원히 평화롭게 이끌고 가는 개념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상생의 이념

상생(相生)의 이념은 비단 인간관계내에서만 통용되는 윤리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이 서로 존재하는 전반적인 양상을 규정짓는 말임을 알아야 한다. 즉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생으로서 관계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가 이미 상생의 환경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상제께서 9년간 행하신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하나의 조판원리이며 천지 만물이 그렇게 상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돌 하나도 다 상생으로 존재하며 하늘과 땅이 서로 상생으로서 그 혜택을 내려주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상생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상생의 이념이 오늘날의 인류가 겪어왔던 상극세상에서의 폐해를 말끔히 해소하고 오로지 선하고 풍요로운 것만을 누리는 선경세상(仙境世上)의 지배원리가 됨을 말해주고 있다.

상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어떤 상극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과 불같은 관계도 후천에서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으로서 존재한다. 선

천세상에서는 음양이 서로 고르지 않아 합덕이 되지 않고 상극적인 투쟁을 일삼았지만 후천은 음양합덕의 세상이므로 서로 상생의 조화를 펼쳐낸다. 이렇게 후천에 상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전경에 나타난 상제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水火金木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 (수화금목은 때를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물은 불에서 생겨나므로 천하에 상극의 이치는 없다. 교운 1장 66절)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日用事物起居動靜 在於耳目口鼻聰明道理 耳屬水 目屬火 明白然後萬事可知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人也 (음이 일을 일으키고 나서 양이 밝아지며 양이 일을 일으키고 나서 음이 숨는다. 모름지기 먼저 음양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 음양은 곧 물과 불일 따름이다. 일용사물과 기거동정은 이목구비가 도리에 총명한가에 달렸으니 귀는 물에 속하고 눈은 불에 속하니 이것이 명백한 이후에 만사를 알 수 있다. 물은 불에서 생겨나며 불은 물에서 생겨난다. 쇠는 나무에서 생겨나며 나무는 쇠에서 생겨난다. 그 쓰임을 알게 된 이후에 비로소 신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생 43절)

물과 불은 음과 양을 대표하는 사물이다. 그런데 선천세상에서는 상극지리가 세계를 지배하였으므로 물과 불은 서로 상극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제께서 이룩하시는 후천의 모습은 이러한 상극적인 관계를 상생으로 바꾸는데 있으므로 어떤 상극적인 사물도 상생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물과 불을 드는데 오행(五行 : 木·火·土·金·水)의 관계에서 수(水)와 화(火)는 서로 상극의 관계이다.(水克火) 하지만 그 근원에서부터 살펴보면 수(水)가 존재하고 생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火)를 거쳐야 하며 따라서 화(火)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수(水)는 결국 화(火)에서 생겨난다(水生於火)’고 말할 수 있으며 금(金)과 목(木)도 마찬가지로 천하에 상극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원적인 관계에서 이해할 때 모든 사물은 서로 상생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며 상극은 사물의 궁극적인 성숙을 위한 하나의 필요악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의 관계도 근원적인 상생으로 전환하여

봄으로써 무한한 조화의 세계가 창출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생은 후천세상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모든 사물의 존재양상을 음양(陰陽)의 개념으로서 규정한다면 이러한 음양이 서로 상생으로 합덕된 세계가 후천이다. 즉 음양합덕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음양합덕은 상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상생의 이념이란 천지 만물이 모두 서로 상생으로서 존재하면서 무한한 혜택을 만들어 내는 가운데 사람들도 그 혜택을 입으며 오직 서로를 잘되게끔만 하는 상생의 윤리를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핀 해원의 이념과 상생의 이념을 결부하여 해원상생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오늘날의 인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행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IV. 해원상생의 실천

해원상생의 종지를 이해하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그 실천덕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그 행동지침을 한마디로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두가지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선천세상의 원을 발생시키는 모순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척을 짓지 않는 생활이 중요하며, 또 하나는 후천의 조판원리으로써 상생이 거론되었듯이 남을 잘 되게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두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 척을 짓지 않음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덕목가운데 근본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부분은 다시는 원(冤)이 맺히지 않게끔 행동하는 것이다. 즉 원(冤)이란 나의 욕심으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보고 이로써 나에게 대한 원망의 감정을 가질 때 생겨나는 것이므로 상대가 나에게 대해 어떠한 원망의 감정도 생기지 않게끔 행동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상제께서는 척(慙)을 짓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교법 2장 44절)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물고 많은 살해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는다.(예시 58절)

이웃 사람이 주는 맛 없는 음식을 먹고 혹 병이 생겼을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나니라.(교법 2장 46절)

척은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게 되므로 발생하며 이는 쌍방이 모두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크게는 남을 살해하거나 해를 입힌 것이 되지만 작게는 사소한 일에 남을 섭섭하게 하는 것도 척이 될 수 있다. 즉 남의 호의를 무시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또는 누구를 편애(偏愛)하거나 편오(偏惡)한다든지 하여도 척이 될 수 있다. 이는 주로 그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척이 되는 경우이므로 스스로 상대의 심정을 잘 살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은 곧 상호간에 맺힌 악감정(惡感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척이 맺히게 되면 어느 한쪽이 풀려고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폐해(弊害)를 서로가 입게 된다. 즉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느 순간에 저지되든지 아니면 자신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자신이 당하든지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상제께서 천원(川原) 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 뼈가 상하여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는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쾌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내 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으리라.」 공우가 크게 감

복하여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후일에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라. 수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열두 고을 목사가 모여서 대 전도회를 연다는 말이 들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열 두 고을 목사가 움직였노라」 하시니라. 그후에 상처가 완전히 나았도다.(교법 3장 12절)

김 형렬이 출타하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교 신자 김 중구(金重九)가 술이 만취되어 김 형렬을 붙들고 혹독하게 능욕하는지라.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칭수를 떠 놓고 네 허물을 살피 뉘우치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였도다. 그후 김 중구는 한때 병으로 인해서 사경에 해매었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금후에 그런 일이 있거던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오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독기가 본처로 돌아가리라」 하셨도다.(교법 2장 28절)

윗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원인모르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척이 맺혀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 이전에 반드시 자신의 허물을 살피서 뉘우칠 때 상대가 품은 원한도 풀리는 것이며 이어서 서로가 해원하게 되어 상생의 관계가 수립되는 것이다. 남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나도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면 이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척이 풀리지 않고 원한이 점철되어 결국 과멸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천상제께서는 그 대순하신 진리로서 이러한 맺힌 척을 푸는 해원상생의 공사를 주도하셨던 것이며, 이렇게 원을 푸는 것으로 지상선경을 달성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바로 다시는 ‘척을 맺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겠다. 일단 맺힌 척에 대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빨리 그것을 푸는 작업이 요구된다. 어떤 원수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풀고 은인과 같이 대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교법 1장 56절)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 1장 9절)

그리고 박대를 받아왔던 천한 사람을 특히 우대하는 것은 과거에 맺혀왔던 척을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제도적으로 천한 사람을 무시하고 적서의 명분을 따지는 행위들은 직접 표현은 못해도 그 조상대에서부터 척이 쌓여왔으므로 해원시대에는 그러한 인습을 속히 버려야 됴을 깨우쳐 주고 있다. 나아가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존경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척도 맺히지 않고 좋은 시대가 빨리 이르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척을 짓지 않는 행동은 해원상생의 주요한 실천덕목으로 꼽힐 수 있겠다.

2. 남을 잘되게 함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지침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서 ‘남을 잘되게 함’을 들 수 있다. 본래 상생의 개념은 서로를 오직 잘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해쳐야만 하는 상극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오직 남을 잘되게 하여야 하는데서 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속에서 솔선수범하는 생활태도가 나올 수 있다.

상생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대인관계가 좋을 수 밖에 없다. 힘든 일 궂은 일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게 되니 모든 사람의 칭송을 사게 되고 이로써 남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므로서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게 되면 상극의 관계에서 볼 때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 밖에 없다. 남으로 부터 미움을 사게 되는 것도 척에 걸리게 되는 것이니 자신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를 가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하고 언제나 양보하고 사양하며 이해하는 것으로 덕을 베풀어 나간다면 어떤 사악(邪惡)한 것도 생겨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후천세상은 오로지 선한 것으로만 존재하게 되니 영원히 장구한 세월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다. (교법 2장 55절)

윗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으로서 먹고 산다는 말은 상극이 아닌 상생의 덕을 서로 베풀어 나가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덕을 베풀고 덕을 먹고 사는 세상을 일컬어 후천세상이라고 한다. 나보다는 상대가 먼저 잘되게끔 하는 마음, 상대를 먼저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자세이며 이로써 후천의 선경이 이룩되는 것이다.

전경에 보면 구천상제께서는 남을 잘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척을 풀고 후천선경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생활화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 (교법 1장 2절)

상제께서 형렬에게 교훈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 말라. 아직도 남아 있는 복이 많으니 남은 복을 구하는 데에 힘쓸지이다. 호한 신천 유불사(呼寒信天猶不死)이니라.」 (교법 3장 9절)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된다는 것은 상생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상대에게 베풀은 덕만큼 나 또한 잘된다는 것이니, 구태여 나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여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상생의 혜택을 입고자 하는데 애쓴다면 누구라도 더불어 잘 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곧 내가 잘되는 길이며,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상생의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호간에 맺힌 척을 풀고 서로의 영화(榮華)를 위해 이렇게 ‘남을 잘되게 한다’는 지침은 해원상생의 실천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V. 맺음말

해원상생의 종지는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이해를 통한 뒤 그것의 사회적 실천 대강령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주요한 개념이다. 구천상제께서 9년간 행하신 천지공사의 이념은 대순종지에 다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음양합덕의 천지조판을 이루고 신인조화의 엄격한 법칙이 세워진 뒤 해원상생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살아나가며 그렇게 조화로운 세계를 이룩한 도통진경으로서 그 공사가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원상생의 종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고는 먼저 그 사상적 배경에서 부터 해원과 상생의 의미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천덕목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므로써 해원상생 사상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해보았다.

해원상생의 사상적 가치가 여타 종교사상과는 달리 모든 종교의 핵심을 다 수용하고 나아가 종교통일과 지상천국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면 그 의미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고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먼저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배경속에서 해원상생의 종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선이해(先理解)를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해원의 의미는 선천세상을 파멸로 이끌게 한 원인이 되었던 상대적 원을 풀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이 바라는 모든 소망을 다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기존의 종교인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소망도 이러한 해원의 의미속에 다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다. 상생의 의미는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진 후천세상에서 모든 천지 만물이 상생으로서 존재하며, 그것은 또 인간에게 선한 덕만을

베풀어 주므로 인간도 이러한 세상에서 서로간에 오직 잘되게끔만 마음을 써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해쳐야만 하는 '상극' 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후천의 평화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배원리가 된다. 이러한 해원상생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오늘날의 인류가 실천생활화 해 나가야 할 덕목으로서 본고는 두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그 첫째로 '척을 짓지 않는 것'과 둘째로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을 말하였다.

대순사상의 종지가 하나의 사상적 체계로서 이해될 때 앞서 살펴본 해원상생의 의미는 오늘날의 종교적 문제 그리고 윤리 도덕적문제 나아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이며 그것은 구천상제께서 이룩하신 천지공사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해원상생의 이념은 구천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오늘날의 인류가 반드시 실천 생활화해 나가야만 하는 대강령으로서 받아들여 져야 할 것이다.